한국_Korea 생활속담

날짜 : 2025년 12월 14일 8:48 오후

타이틀	설명
도토리 키 재기	정도가 고만고만한 사람끼리 서로 다툼을 이르는 말
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	비록 잘 아는 일이라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말
돼지에 진주	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보물도 아무 소용이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
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	남을 조금 건드렸다가 큰 되갚음을 당한다는 말
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	크게 될 사람은 어릴 적부터 남다르다는 뜻으로, 좋은 결과가 기대되는 일은 처음부터 잘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
두 손뼉이 맞아야 소리가 난다	무슨 일이든지 양편의 손이 서로 맞아야 할 수 있다는 말
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르겠다	두 사람이 음식을 먹다가 그중 한 사람이 죽어도 모를 정도로 음식에 정신이 팔려 있다는 뜻으로, 음식의 맛이 대단히 좋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
도랑 치고 가재 잡는다	도랑을 치우고 나면 진흙에 숨어 있던 가재도 없어지게 되는데 그 후에 가재를 잡는다는 뜻으로, 일의 순서가 바뀌어서 애쓴 보람이 없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
되는 집에는 가지 나무에 수박이 열린다	잘되어 가는 집은 하는 일마다 좋은 일이 생기거나 좋은 결과를 맺게 된다는 말